

전형화에 관한 이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

김철민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을 그림으로써 형상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본보기적성격을 내세워 문학의 인식교양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지난날의 사실주의문학에서도 사람을 그리는데서 전형화를 필수적요구로 제기하였지만 그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던것만큼 이 요구를 옳게 해결할수 없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14~115페이지)

예술적전형은 언제나 사회와 시대, 계급과 민족의 본질적특징을 개성적으로 체현한 성격형상, 본보기적성격으로 된다.

성격은 시대, 계급, 민족의 특징을 본질적인것으로 체현하고있어야 진실로 참다운 성격, 전형적인 형상으로 된다. 그것은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떠나서 전형이 창조될수 없을뿐아니라 시대적환경과 계급, 민족과의 관계속에서만 성격의 전형화도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격을 형상할 때에는 그가 어떤 시대, 어떤 처지, 어떤 계급적토대에서 자라난 인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전형은 이와 함께 사회계급적본질을 개성적으로 체현한 산 인간의 형상이다.

문학의 전형은 언제나 사회계급적본질을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체현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성적으로 체현한다.

이로부터 전형적성격의 창조는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전형화에 관한 문제는 일찌기 고대시기부터 시작하여 오랜 력사적시기에 걸쳐 론의되어왔다.

무엇보다먼저 고대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전형화에 관한 이론의 시초가 열려지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신의 산물》이라는 관념적인 견해와 플라톤의 《리념의 모방설》에 대한 객관관념론적인 견해를 반대하고 《생활의 모방설》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주의문예론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문예저서인 《시학》에서 비극리론을 전개하면서 성격형상에 관한 일련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성격은 행동하는 인물을 규정하는 특징, 인물의 지향세계라고 밝히고 성격창조의 조건과 원칙을 고상한것, 적합한것, 진실한것, 시종일관한것의 네가지로 제시하면서 현실에 실지 모순이 있는 성격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필연적으로, 합목적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성격창조의 원칙을 진실한것으로 밝히고 현실에 있는 인간성격을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한것은 전형화의 요구를 일정하게 시사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고대로마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에 의하여 인물성격의 《류형설》, 《정형설》에 관한 견해가 제기됨으로써 사실주의적전형화에 관한 이론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하게 되었다.

호라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플라톤의 미학적견해에서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론의하는 과정에 운문체장편원지형식의 저서 《시에술》을

집필하였다.

그는 《시예술》에서 인물성격의 《류형설》, 《정형설》에 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류형설》은 인물성격을 묘사함에 있어서 나이와 계층, 신분의 보편적요소들을 적중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견해이며 《정형설》은 고대시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에 비교적 완벽한 성격이 있다면 그 성격에 시대적외피를 씌워 계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호라티우스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할 때에는 나이에 따르는 특징, 고전적인 성격류형들을 합당하게 모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늙은이를 묘사한다면 년장자들의 성격적류형인 《타산을 앞세우고 정열이 부족한 측면》, 《무능력하면서도 젊은이들을 지독하게 욕하는》 측면 등을 합당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성격을 발전속에서가 아니라 고전모방의 테두리내에서 극히 규범화, 도식화하고있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과 규칙성에 기초한 전형을 주장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부정한것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시대와 환경, 인물의 개성에 기초하는 성격형상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기 위한 미학적탐구에 적지 않게 저해를 준것으로 된다.

인물성격의 《류형설》, 《정형설》은 호라티우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어 17세기 부알로를 대표로 하는 고전주의문예리론에서 기본문예규범의 하나로까지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고전주의문예학설의 대표자인 부알로에 의하여 《류형설》, 《정형설》에 대한 리론이 보다 더 발전하였다.

부알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작품들에 형상된 성격에 보편적진리 즉 《리성》이 구현되었다고 하면서 문학은 인간성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것을 묘사하여야 하며 그래야 영향력을 가지고 영원불멸할수 있다고 하였다.

부알로의 《류형설》, 《정형설》의 기초에는 《미는 미적류형》, 《사물의 보편적상태》라는 견해가 놓여있다. 그에 의하면 《아름다운 눈은 대다수의 눈과 모양이 똑같은 눈》이며 《가장 정상》, 《가장 대표적》, 《가장 보통의것》으로 되는 인간의 성질이 《정형》, 《류형》으로 된다. 즉 부알로의 문예관점에서 본다면 몰리에르의 작품 《수전노》에 나오는 주인공은 생활에서 보게 되는 여러 수전노들가운데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한 《정형》이다.

이것은 고전주의문예학설에서 제기된 《정형설》, 《류형설》이 다름아닌 인간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실주의적전형화에 관한 논의를 의미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식론에 바탕을 두고있는 이러한 견해는 사회계급적성격과 인간의 개성적특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 해석에서 심한 추상성과 극단적인 일면성을 나타내고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리성》적규범 즉 일반을 파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작품에 손상을 주게 된다. 18세기 영국의 한 리성주의문예학자가 셰익스피어의 한 작품에서 로마원로원성원을 키작은 곱추로 형상하였다고 비평한것과 그의 작품 《막베스》에서 막베스가 백정이 《가장 비천한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도살용칼)로 국왕을 죽이도록 한것은 《류형》을 파괴하고 법칙을 위반한것이라고 비난한 사실에서 그 비과학성을 엿볼수 있다.

고전주의문예학설에서 제기한 《정형설》, 《류형설》은 일반과 개성을 절대적으로 대립시키고 일반만을 추구하는 편견적인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영국계몽운동후기의 대표적인 문예학자였던 헨리 필딩에 의하여 근대사실주의전형화리론의 발전이 보다 촉진되었다.

헨리 필딩은 《자연인》리상을 구체화하면서 《합리적범위》, 《합리적감정》을 추구하였으며 고전주의가 제기한 인물형상의 《류형설》을 기본적으로 긍정하였다.

《자연인》리상은 《자연》의 품에 안겨산 태고적인간처럼 당시 사회의 신분적편견, 종교적계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지향하는 인간에 대한 리상이다. 이것은 계몽운동이 추구하던 《리성》에 기초한 인성론 즉 자유와 평등, 박애와 개성을 내세우는 근대 부르조아지의 사상적지향이었다.

헨리 필딩은 문학이 《자연인》리상을 형상하는것은 작가가 《기아에 시달리는 독자를 먹여살리는 일》인것만큼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차려놓아야 하듯이 《합리적범위》속에서 《합리적감정》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합리적감정》이란 실례로 최악은 증오의 대상으로, 착오는 편민의 대상으로 여기는 감정이며 허영은 진실에 보다 접근되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의 격렬한 투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기는 감정이다.

그는 바로 이러한 《자연인》리상에 기초한 《합리적감정》을 추구하면서 고전주의가 제기한 인물형상의 《류형설》을 기본적으로 긍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물을 그리는데서는 언제나 《미적인 표준형》의 인물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그의 《결점》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전주의의 《류형설》이 일반성만을 추구하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내가 묘사하려는것은 어떠한 A, 어떠한 B인것이 아니라 성격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개성과 일반을 다같이 체현한 성격을 그릴데 대한 요구를 일정하게 시사한것으로 되며 《류형설》의 범위에서나마 예술적전형문제를 일정하게 탐구한 견해로서 근대예술적전형에 관한 사실주의리론발전에 긍정적기여를 한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로씨야혁명적민주주의문예학설의 대표자 벨린스끼에 의하여 사실주의적전형화에 관한 리론이 새로운 측면에서 밝혀지게 되었다.

벨린스끼는 사실주의적전형화를 본질적이며 필연적인것을 일반화하는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시인에게는 《명죄적이며 우연한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리상만이 즉 현실의 제 현상에 대하여 종에 대한 류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있는 전형적형상》만이 존재하며 이 전형적형상은 《자기의 온갖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는 가능한 제 현상의 온 한개 류의 모든 일반적이며 류적인 표징들을 포함》하고있는것이라고 하였다.

벨린스끼는 이러한 리해에 기초하여 진정한 재능을 가진 작가들의 인물은 그 어느것이나 다 전형이며 예술작품중의 매개 인물은 《한개 류에 속하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대표자로서》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안면있는 낯모를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한 정신, 불타는 열정, 방대한 지혜를 가지고있으나 협애한 편견을 가지고있으며 미친듯이 처를 사랑하는 나머지 불성실하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손으로 그 녀자의 목을 눌러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대신에 보다 짧고 간결하게 오셀로라고 말하라.》라고 하였다.

사실주의적전형화에 대한 벨린스끼의 견해는 문학작품과 그 주인공은 현실을 복사하는것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개별적이고 우연적인것은 버리고 전형적인것 즉 보편적이고 필연적인것을 일반화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사실주의적전형화에 대한 벨린스끼의 견해는 이전시기 하나의 굳어진 공식처럼 인정되어오던 《류형설》, 《정형설》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사실주의문학예술의 본성적특성인 전형화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발전시킨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실주의적전형화에 대한 벨린스끼의 견해에서는 추상성, 초계급적인 태도와 같은 제한성이 나타나고있다.

그의 전형화리론에서는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전형적인것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정확히 해명되지 못하고있다. 즉 전형화문제를 실무적인 순수 예술상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해석한것으로 하여 사람일반을 중심에 놓고 이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전형적인 인물은 독자에게 있어서 《낯익은 모를 사람》이라고 한 벨린스끼의 견해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일반적인것으로 해석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전형화에 대한 리론에서 일반화에 대하여서는 많이 강조하였으나 인물의 사상정신적특질과 그 개성적표현에 대하여 홀시함으로써 전형화문제를 원만히 풀어낼수 없었다.

다음으로 맑스-레닌주의문예학설에 의하여 사실주의적전형화에 관한 리론은 새로운 과학적태도에서 밝혀지게 되었다.

레닌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전형화문제가 가지는 정치적인의를 인식한데 기초하여 예술에서의 전형은 개개인물의 성질을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류의 사회계급적특질을 의미하는것으로 리해하였다.

그는 자기의 논문 《게이덴백작의 추억》(1907)에서 《무엇이 특징적이며 무엇이 전형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에서의 전형화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술적전형은 그 계급, 그 형상의 표본이다.

레닌은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리해를 주기 위하여 논문 《사환군방》에서 사회적전형으로서의 사환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는 성격적으로 볼 때 사환군은 아주 정직한 사람일수도 있으나 그의 직업이 주인에게 《성심성의》로 복무할 의무가 있고 머슴으로 되는 계층의 리익과 결부되어있는것만큼 사환군의 기본특징은 《위선》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여기서 레닌은 사회적전형과 예술적전형을 구별하고있는데 그에 의하면 일정한 계급과 계층출신의 대표자들이 예술에 반영되면 그것이 전형적인 성격, 사회계급적《타이프》로 형상화되는것이다. 레닌은 예술적전형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주로 전형이 체현하고있는 사회계급적특질문제만을 분석하고 생활의 본질을 체현한 산 인간의 개성적인 형상문제는 밝히지 못하였다.

고리끼는 문학적사실과 형상적일반화의 호상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실주의 전형화리론을 보다 더 구체화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문학은 사실성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진실전체가 아니며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일반화》할 때 현실의 반복되는 수다한 현상들을 정당하게 반영할수 있다.

이로부터 고리끼는 《문학적사실—이것은 동종의 많은 사실들로부터 뽑아낸 정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작가가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자면 같은 계층이나 부류에 속하는 수십명의 인물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 한 인물에 종합집중시켜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작가의 전형화작업을 꿀벌이 백가지 꽃에서 꽃가루를 모아다가 꿀을 만드는데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예술적전형화에 대하여 《전형이란 두말할 필요없이 고정적으

로 어느 한사람을 포착하여 초상화 그려내듯이 구성하는것이 아니다. 동일한 로선, 동일한 계층, 동일한 기분의 인간 삼십-오십명을 포착하여 이들로부터 xx를 창조하여내는것이다. 이것이 일반화된 전형이다.》라고 하였으며 《전형-이것은 어떠한 계층에 속하는 인물 등에 고유한 수많은 개별적특징들의 종합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전형화에 대한 고리끼의 견해는 생활에서 비본질적이고 우연적인것을 버리고 본질적이고 필연적인것을 취하여 일반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한것으로서 이전시기 벨린스키의 견해를 보다 발전시킨것으로 된다.

그러나 고리끼의 견해도 역시 일반화문제에 대하여서만 강조하였을뿐 산 인간의 개성적특징을 살려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선행한 문예리론이 전형화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일반화일면에만 치우치게 된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리해에 기초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 《사회적관계》의 총체라고 하였다.

물론 맑스주의창시자들도 사람을 그리는데서 전형화를 필수적요구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본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보지 못하고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본데로부터 성격에 대한 환경의 규정적인 역할에 대하여서는 강조하였지만 환경에 대한 성격의 능동적인 반작용과 주동적인 역할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들은 주로 성격이 환경에 의하여 제약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런데로부터 문학창작에서 환경에 성격을 파묻어버리는 여러가지 편향이 나타났다.

전형화는 인간을 계급과 계층의 본보기로 얼마나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내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사람의 본성을 깊이있게 파고들지 않고서는 전형화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사실주의적전형화에 관한 리론은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가장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전형적성격의 창조는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